

남편의 심리적 양성성이 남편의 자녀양육 참여와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이 미 숙* (가톨릭대학교 생활과학부 교수)

본 연구의 목적은 남편의 심리적 양성성이 남편의 자녀양육 참여와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지 규명하고, 이를 기초로 결혼관계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을 제공하려는 데 있다. 연구방법은 설문지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녀가 있는 부부를 대상으로 서울과 수도권에 설문지를 배포·수집하였는데, 총 512쌍의 부부를 최종 분석하였다. 512쌍 중 부인이 취업한 경우는 263쌍(51.4%), 비취업한 경우는 249쌍(48.6%)이다. 자료분석방법은 빈도분포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피어슨 상관 분석, 집단간 차이에 대한 χ^2 검증, t검증, one-way ANOVA와 Scheffé 검증, 그리고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1) 남편의 심리적 양성성은 자녀양육 참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심리적 여성성 또는 남성성이 강하거나 혹은 심리적으로 미분화된 남편들과 비교할 때 심리적 여성성과 남성성을 골고루 갖춘 남편들은 자녀양육 참여가 상대적으로 가장 높다. 반면, 심리적 남성성이 강한 남편들은 자녀양육 참여가 상대적으로 가장 낮다. 2) 남편의 심리적 양성성은 남편과 부인 모두의 결혼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반면, 심리적 남성성이 강하거나 심리적으로 미분화된 남편의 경우에는 그들 부부의 결혼만족도는 모두 부정적 영향을 받는다. 3) 남편이 자녀양육에 많이 참여할수록 부인의 결혼만족도는 증가한다. 반면, 남편의 자녀양육 참여는 남편 자신에게 별다른 영향이 없다. 4) 인구학적 변수인 부인의 취업유무, 남편의 교육수준, 자녀의 성별구성을 통제한 후 남편의 심리적 양성성이 남편의 자녀양육 참여와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중회귀분석으로 알아본 결과, 남편의 심리적 양성성이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한편, 인구학적 변수 가운데서 부인의 취업유무와 자녀의 성별구성은 남편의 심리적 양성성과 더불어 남편의 자녀양육 참여에 영향을 미친다. 부인이 취업한 경우 남편은 자녀양육에 더 많이 참여한다. 또한, 자녀의 성별이 아들만으로 구성된 경우 남편은 자녀양육에 더 많이 참여한다. 그밖에, 남편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부부의 결혼만족도는 긍정적 영향을 받는다. 본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제언하면, 1) 부부의 결혼관계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특히, 심리적 남성성이 강하거나 또는 심리적으로 미분화된 남편들로 하여금 심리적 양성성을 갖출 수 있도록 그들을 교육하고 상담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2) 맞벌이 부부의 경우 남편이 자녀양육에 더 많이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남편의 심리적 양성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널리 인식시킴으로써 맞벌이 부부의 역할과중과 스트레스를 감소시켜 주는 대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3) 자녀의 성별이 딸만으로 구성된 경우에도 아버지로서 자녀양육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특히, 심리적 남성성이 강하거나 또는 심리적으로 미분화된 남편들에게 심리적 양성성을 고취시키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